현대중공업, 태양광·풍력 시장 공략

2010년 신·재생 에너지 전시회 7차례 참가 ... 해외기업 수주 노력

현대중공업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·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요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.

현대중공업은 5월 19-2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최대의 태양광 전시회인 <GENERA 2010>에 이어 23-26일 미국 델러스에서 개최되는 풍력발전 전시회인 <WINDPOWER 2010>에 참가 중이라고 5월24일 발표했다.

세계 27개국 694사가 모인 GENERA 2010에서 현대중공업은 태양광 실리콘과 잉곳, 웨이퍼, 태양전지, 모듈 및 태양광용 인버터를 출품했다.

베스타스, 가메사, GE에너지 등 1300여사가 참가한 WINDPOWER 2010에서는 2.0MW 및 2.5MW 풍력발전기 축소모형을 전시했다.

2009년에도 WINDPOWER 전시회에서 미국 웨이브윈드로부터 1.65MW 풍력발전기 6기를 수주한 바 있다.

현대중공업은 2010년 들어 신·재생 에너지 전시회에 7차례 참가했고, 6월9일에는 독일 뮌헨에서 개막하는 태양광 전시회인 <INTERSOLAR 2010>에도 참가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25>